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20151008 vol.143

ISSUE BRIEFING

전라도 '개도(開道) 천년' 을 ^(1018~2018) 준비하자!

2018년 新정부의 국가기념사업 및
메가프로젝트화 추진

장세길_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형오_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영_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C O N T E N T S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 2015년 10월 08일 vol.143 발행인_강현직 발행처_전북발전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it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라도 ‘개도(開道) 천년’을^(1018~2018) 준비하자!

2018년 新정부의 국가기념사업 및 메가프로젝트화 추진

1. 전라도 ‘개도(開道) 천년’ : 1018~2018
2. 선사시대부터 조선까지, 경제·문화·정신의 중심
3. 개도 천년의 의미와 국가사업의 필요성
4. 역사기념사업 및 Mega Project 사례
5. 개도 천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개도 천년의 역사와 의미

- 고려 현종 9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서 전라도라 칭하였음. 즉, 전라도 지명이 처음 등장한 것은 1018년이며, 2018년은 개도 천년이 되는 해임
- 고려사 훈요십조는 전라도 차별대우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역사학자들은 훈요십조가 신라계통의 정치세력에 의해 날조 첨가됐으며, 산천배역(背逆)설을 악용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함
- 역사기록을 들먹이며 '전라도의 지세' 나 '전라도인의 타고난 근성'을 문제 삼지만, 현대의 '전라도 혐오증'은 국가주도의 불균등한 근대화 정책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더 큰 원인임. 즉 개도 천년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잘못된 역사 바로 세우기 및 국민적 인식 제고가 필요함
- 2018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차별과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함. 이를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맞이하는 전라도 개도 천년을 기념하는 국가차원의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함



〈고려사〉 지, 지리지 전라도

□ 개도 천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전북도-전남도-광주시, 전주사-나주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함. 이를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가칭) '전라도 개도 천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함
- 개도 천년에 대해 국내외로 홍보하고, 공동으로 국가사업 및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함
- 새롭게 천년을 구상한다는 의미에서 (가칭) '전라 그랜드디자인 프로젝트' (J-GDP, Grand Design Project)를 구상하고, 2017년 대선공약화 및 2018년 新정부 국정 과제화를 추진함

□ 국가차원의 개도 천년 기념사업 (예시)

- ① 국가주도의 개도 천년 기념식 (2018) :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밀레니엄프로젝트의 의미를 담아 개최함. 천년 동안 전라도의 중심이 '전주'였기 때문에 전주에서 개최하거나, 전주-나주의 상생 발전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두 지역 동시 개최
- ② 천년역사 바로세우기 (2017~2018) : '전라도 혐오증'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외 학술행사, 대국민 홍보이벤트 등을 2017년부터 개최, 전라학 프로젝트를 추진함
- ③ 천년의 전라 방문의 해 개최 (2018) : 국가 차원의 '2018 천년의 전라 특별 방문의 해'를 개최함. 전라도의 역사·문화·자연 등의 통합관광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실시함
- ④ 문화(예술)로 맞이하는 개도 천년 (2018) : 개도 천년 기념 대규모 예술행사 및 문화이벤트 개최

□ J-GDP: 전라 그랜드디자인 프로젝트 (예시)

- ① 전라 역사 新르네상스 : 묻혀있던 왕조의 부활 : 전라역사의 시작인 마한, 동북아교류의 중심인 후백제에 대한 발굴 및 복원, 자원화를 추진함
- ② 밀레니엄 상징공간(파크) 및 역사·문화루트 조성 : 개도 천년을 기념하기 미래 전라도의 비전을 상징하는 전라밀레니엄파크와 전라 천년의 역사를 복원·연계한 '전라역사루트(全羅歷史街道)', 천년 바닷길을 연계한 전라 해안 예술회랑 등을 조성함
- ③ 국제적 메가이벤트 유치 : 1단계로 국제 농생명 박람회(2020)를 개최하고, 2단계는 여수박람회처럼 BIE 인증 혹은 등록 박람회로서 '전주농생명박람회'를 2025년 경에 개최함
- ④ 전라정신 계승 및 전라인재 양성 프로젝트 : 동아시아 인재를 전라도에서 양성하는 동아시아칼리지 (College of East Asia)를 설립함

1. 전라도 '개도(開道) 천년': 1018~2018

□ 고려 현종 9년(1018),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전라도' 탄생

○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현종 9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강남도(전주와 주변지역)와 해양도(나주와 주변 지역)를 합쳐서 전라도라 하였음. 즉,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딴 전라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1018년이며, 2018년은 개도 천년이 되는 해임

– 성종 14년(995)에 전주·영주(瀛州)·순주(淳州)·마주(馬州) 등의 주현으로 강남도(江南道)를, 나주(羅州)·광주(光州)·정주(靜州)·승주(昇州)·패주(貝州)·담주(潭州)·낭주(朗州) 등의 주현으로 해양도(海陽道)를 삼았다. 현종 9년(1018)에 합쳐서 전라도로 하였다. 관할하는 목(牧)이 2개, 부(府)가 2개, 군(郡)이 18개, 현(縣)이 82개이다.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국역고려사: 지』 참조)

□ 천년을 지킨 이름, 전라도

○ 동일한 명칭으로 유사한 권역을 천년 동안 관리한 행정구역은 전라도가 유일함

구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개도	1018년 (고려현종 9년)	1314년 (고려충숙왕 원년)	1356년 (고려공민왕 5년)	1395년 (조선태조 4년)	1414년 (조선태종 14년)

– 경상도(慶尙道)는 예종 원년(1106)년에 경상진주도(慶尙晉州道)라고 칭하였으나, 명종 원년(1171)에 경상주도(慶尙州道)와 진한주도(晉陝州道)로 나누었다가 16년(1186)에 경상주도로 하였다. 신종 7년(1204)에 상진안동도(尙晉安東道)로 하였다가 다시 경상진안도(慶尙晉安道)로 고쳤다. 고종 46년(1259)에 화주(和州)·등주(登州)·정주(定州)·장주(長州)의 네 주가 몽고로 편입되자 평해(平海)·덕원(德原 : 예주)·영덕(盈德)·송생(松生)을 명주도(溟州道)에 예속시켰다. 충숙왕 원년(1314)에 경상도(慶尙道)라 정하였다.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국역고려사: 지』 참조)

– 충청도(忠淸道)는 성종 14년(995)에 지역을 나누어 10도로 나누면서, 양주(楊州)·광주(廣州) 등의 주현은 관내도(關內道)에 소속시켰고, 충주(忠州)·청주(淸州) 등의 주현은 충원도(忠原道)로 하였으며, 공주(公州)·운주(運州) 등의 주현은 하남도(河南道)로 하였다. 예종 원년(1106)에 합하여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로 하였다. 명종(明宗) 원년(1171)에 두 개의 도(道)로 나누었다. 충숙왕(忠肅王) 원년(1314)에 양광도로 정하였다. 공민왕 5년(1356)에 충청도(忠淸道)로 하였다.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국역고려사: 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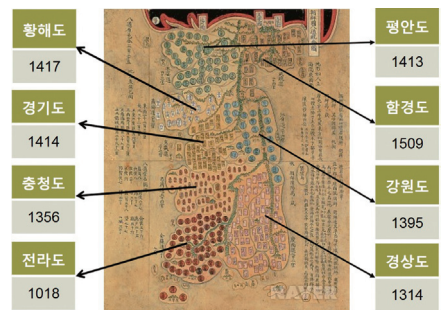
– 교주도(交州道, 지금의 강원도)는 명종 8년(1178)에 처음으로 춘주도(春州道)라고 칭했으며 뒤에 동주도(東州道)라고 칭하였다. 원종 4년(1263)에 교주도(交州道)라고 칭하였다. 충숙왕 원년(1314)에 회양도(淮陽道)라고 칭하였다. 우왕 14년(1388)에 영동(嶺東)과 영서(嶺西)를 아울러 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로 하고, 충주가 관할하던 평창군(平昌郡)을 내속시켰다.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국역고려사: 지』 참조)

– 경기도(京畿道)는 1018년(고려 현종 9)에 적현과 기현의 12개 현을 통합하여 왕도의 외곽지역을 정식으로 경기(京畿)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는 개성지역을 경기라 칭하고 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인 개성부가 설치된 이후, 조선조에 들어와 여러 차례 개·폐 과정을 거친 후 태종 14년(1414)년에 이르러서 전국이 8도 체제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경기도로 불리게 됐고, 세종 16년(1434)년에 이르러서야 조선왕조의 주변지역, 즉 현재의 경기로 확립되었다. (이달호·서은영, 1997, 『경기도 역사와 문화』 참조)

○ 조선시대에도 전라도는 그대로 유지되었음.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전라도편에 따르면, 인조 23년(1645), 효종 6년(1655), 영조 4년(1728)에 각각 전남도(全南道), 광남도(光南道), 전광도(全光道)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고 대부분의 기간은 전라도로 불리었음



〈『고려사』 지, 지리지 전라도〉



〈『고려사』 기타지역〉

- 1645년(인조 23년)에 나주에서 향리가 목사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주목을 금성현(錦城縣)으로 강등하고 나주 대신 남원을 따서 전남도(全南道)라 하였다. 1654년(효종 5년)에 금성현은 나주목으로, 전남도는 전라도로 복구되었다. 그러나 1년 후 1655년 나주에서 전패(殿牌)가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나 다시 금성현으로 강등되고 전남도가 되었다. 광남도(光南道) 등으로 개칭했다가 되돌렸으며, 1728년(영조 4년)에는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나주목이 또다시 현으로 강등되고 광주를 따서 전광도(全光道)로 변경되기도 했으나 1737년에 다시 전라도로 돌아왔다.〔위키백과사전〕 참조)

○ 전국이 13도제로 바뀐 1896년부터 전라북도과 전라남도로 나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만경평야〉



〈고창 고인돌〉

2. 선사시대부터 조선까지, 경제·문화·정신의 중심

□ 쌀문명의 중심이자 한반도 경제의 중심

- 한반도는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남다른 쌀문명을 형성했으며, 그 중심이 전라도임. 특히 호남평야는 중국의 양쯔강 삼각주, 일본의 동북 지역, 베트남의 메콩강 삼각주, 자바의 동남부 지역 등과 함께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작지대 중 하나임
- 전라도 지역은 선사·고대사회부터 한반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었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석묘(발견된 것의 90%)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증거임

□ 한민족 전통의 발신지이자 대한민국 국호 유래, 마한

- 전라도 문화의 근원은 마한임. 마한은 삼한의 '마루 종(宗)', 즉 '으뜸'이었으며, 세력 면에 있어서도 소속된 부족국가가 54개국이나 되었음(이해준, 1999: 264). 마한문화는 북방의 고조선 중심 문화와 성격을 달리함. 북방민족문화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한민족만의 고유한 전통을 형성하면서 중국과 교류를 모색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1897년에 새로운 국호로서 '대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그 연원으로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을 제시하였음. 전라도는 삼한 중 마한의 중심임

□ 한반도 국제교류 및 문명의 관문, 전라도 바닷길

- 백제를 거쳐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바닷길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전라도 땅은 동북아 국제교류 및 경제, 문화의 관문이자 다양한 문명이 융합된 선진문화의 발신지였음
- 전라도 바닷길은 "왕건과 견훤이 쟁패의 대상으로 삼아 격전을 치렀으며, 유리한 해로를 장악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한국문화사상에서 백제문화가 개방적이었다고 지목되는 것과 고려의 문화가 그 다양함과 개방성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에 있었다고 평가되는 것" (이해준, 1999: 269~270) 결국 전라도의 바닷길 때문이었음
- 청자와 선종의 발달, 고려 무신정권의 경제적 배경, 삼별초의 항거거점, 고려와 조선시대에 경상우도와 전라도의 세곡이 운반되던 조운항로 등 전라도 바닷길은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육로였으며, 전라도가 국제교류와 경제의 핵심지역이었다는 것을 상징함

□ 절의와 저항, 비판의 실천력을 갖춘 인재의 고장

- 기묘사화(1519년), 기축옥사(1589년) 이후 전라도 지식인들은 중앙 진출의 기회를 폐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란과 호란에 직면했을 때는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의병봉기와 충절을 표출하였고, 양란 이후 사회모순이 극에 달할 때는 날카로운 비판적 식견과 개혁논의(호남실학)로 비판의 실천력을 갖춘 지성적 책무를 다하였음
- 한국 근·현대사에서 반봉건 민중으로 상징되는 동학농민혁명, 한말에서 일제감정기까지 의병항쟁, 군사정권에 맞선 광주민주화운동 등 반외세 민중혁명이 모두 전라도 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지난 천년의 역사 동안 전라도는 절의와 저항의 실천력을 갖춘 한국정신의 본향이자, 비판적 실천력을 갖춘 인재의 고장이었음

3. 개도 천년의 의미와 국가사업의 필요성

□ ‘전라도 혐오증’, 국가주도의 불균형 근대화 정책의 결과

- 2014년 ‘남양공업’의 전라도 출신 채용 배제라는 뉴스는 한국사회에서 ‘전라도 혐오증’이 얼마나 만연돼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음
- 전라도를 차별하는 논리를 만들고자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訓要十條) 중 제8조¹⁾와 이중환의 택리지²⁾를 찾아내 제시하고 있으나, 근대화 이후 형성된 전라도 혐오증은 전라도 외 지역사람에 의한 ‘낙인찍기’에 불과함³⁾
- 특히 전라도 혐오증은 근대화 과정에서 서울-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라인 중심의 국가주도 경제발전을 추진한데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
- 근대화 시기의 농촌해체 정책과 경부라인 중심의 산업유치 정책으로 전라도는 산업화에 뒤처졌으며,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이주해 험한 직업, 가난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음. 그러다보니 TV드라마, 영화에서 악역은 전라도 출신이 도맡다시피 했고(대부분 배신을 일삼고 비열함),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주인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라도,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비하나 혐오감정이 깊어지게 된 것임
- 역사기록을 들먹이며 ‘전라도의 지세’나 ‘전라도인의 타고난 근성’을 문제 삼지만, 현대의 ‘전라도 혐오증’은 국가주도의 불균등한 근대화 정책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결국 ‘전라도 혐오증’은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함

□ 국가 차원의 잘못된 역사바로 세우기 및 국민적 인식 제고 필요

- 고려사 훈요십조 중 제8조는 전라도 차별대우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역사학자들의 해석은 다름
- 이희권(2001: 32-33)은 훈요십조가 고려시기 신라계통의 정치세력에 의해 날조 첨가됐으며, 산천 배역(背逆)설을 악용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함
 - 첫째, 훈요십조 중 제8조는 왕건 태조가 고려 초기에 반(反)고려적인 성향이 강했던 ‘차현 이남 공주강 이북’ 지역인물들의 등용을 억제하고자 제정한 것임
 - 둘째, 제8조 중 상당부분은 현종 때에 새롭게 날조 첨가됐으며, 이를 주도한 세력은 신라계통 정치세력들이었음. 특히 훈요십조는 8조의 주요부분이 개작된 이후에 세상에 공개되면서 태조가 금강 이남의 호서, 호남사람들의 등용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조항으로 이해되어 왔음
 - 셋째, 조선 시기에 금강 이남의 산천 배역(背逆)설이 정감록, 택리지 등에서 논의되면서 전라도 사람에 대한 기피와 편견이 확대됐으나, 이것은 전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역사적 편견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풍수지리설을 가탁(假託)하여 특정 지역 사람들을 배제하려 만든 담론에 불과함

1)“차령 이남과 공주 금강 이외의 지역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배역하는 형세이며 인심 또한 그러하다. 그 아래 고을의 인물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 국척들과 혼인하여 국정을 쥐게 되면 국가를 변란 속에 빠지게 하거나, 고려에 통합된 원한을 품고 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찍이 관청의 노비나 역이나 나무 등에서 천역에 몸을 담던 무리들도 혹은 권세기에 붙어 역을 면하고 신분을 바꾸고, 왕실이나 궁궐에 살며 말을 간교하게 하여 권세를 희롱하고 정사를 어지럽혀 재난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비록 양민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벼슬 자리에 두어 일을 보게 하지 말라”(고려사 세가 권2 태조 26년 4월조; 이희권, 2001에서 재인용).

2)“이곳 풍속이 노래와 계집을 좋아하고 사치를 즐겨하며, 사람들이 영리하고 간사하여 문학을 대단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과거에 올라 훌륭하게 된 사람의 수효가 경상도에 비해 적다.”

3)“내가 겪은 대로 말하자면 경상도 사람들의 전라도 혐오감은 ‘전라도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형성된다. 주로 서울에 살거나 살다 온 가족과 친지들에게서 듣는 좋지 못한 이야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무개 집주인이 전세금을 띠먹었는데 전라도 사람이라 카더라’ 이라든가, ‘아무개네 가게 경리직원이 돈을 빼돌리다가 들켰는데 전라도 어디 여자라 카더라’는 식의 구체적인 ‘파해사례가 화재로 오르면, 사실 여부나 그런 못된 짓을 한 ‘바로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만 부각된다.”(유시민, 1997)

- 넷째, 고려 태조가 등용을 제한하려 했던 지역이 차현 이남 공주강 이북의 극히 제한된 지역이었으며, 금강 이남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고려 시기에 이들 지역의 인물들이 등용된 상태에서 확인됨

□ 2018년 新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기념사업과 밀레니엄프로젝트 추진

- 2018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차별과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함. 이를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맞이하는 전라도 개도 천년을 기념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천년동안 전라도가 경제와 문화의 국제교류 중심지로서 한반도의 역사를 이끌어 온 것처럼 개도 천년을 계기로 전라도가 동북아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밀레니엄(millennium)프로젝트가 마련되어야 함



〈훈요십조 중 제8조〉

4. 역사기념사업 및 Mega Project 사례

1) 역사기념사업의 국내사례

□ 서울 정도(定都) 600년 (1994)

- 서울시는 1992년부터 예산 601억원을 투입해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는 4개 분야 38개 사업을 진행함. 서울시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정도 600년 기념 엠블럼과 마스코트도 발표함
-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은 서울 뿌리찾기, 서울 모습 다듬기, 문화진흥과 시민화합, 국제화와 미래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됨. 서울 옛모습 모형 제작, 서울학 육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고(서울 뿌리찾기), 역사문화탐방로와 타임캡슐광장이 조성됨(서울 모습 다듬기)
- 이외에도 시립박물관이 건립되었고, 정도 600년 거리축제 등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음



〈서울천년타임캡슐광장〉

□ 경상도 개도 700년 (2014)

- 경상도의 개도 700년 기념사업은 경상북도와 경주, 상주가 주축이 되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했음. 가장 큰 프로젝트는 개도 700주년을 기념해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었음. 이와 더불어 다양한 축하행사를 개최함
- 경상도 개도 7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경상도 개도 700주년 기념 특별전 ‘경상도인’ 및 ‘경상북도 1314~1896’ 등의 행사가 마련됐으며,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북판타지 아리랑인 〈천년사랑 경북의 꿈〉 공연이 제작됐음

□ 경기도 개도 600년 (2014)

- 경기도는 2014년 2월 16일 수원화성행궁에서 정도(定道) 600년 기념행사를 진행함. 기념식에는 타종행사, 남사당패 길놀이, 경기도립국악단의 운우풍뢰(雲雨風雷) 공연, 고유제4) 등이 진행됐음



07

- 기념행사 바로 다음날인 2월 17일에 '통일 한국의 중심, 경기도 600년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됨. 개도 600년을 기념하여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 역사를 기록한 『육백년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자 이야기』 책자를 발간함
- 또한, 경기도 개도 600년을 나타내는 숫자 600에 태극문양을 합성한 엠블럼을 마련하여 통일한국의 비전을 수립함
- 이외에도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2014년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경기옛길 따라 릴레이 종주 및 도민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음. 경기도박물관은 '조선 근본의 땅, 경기'전을 개최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함. 한국도자재단 역시 경기도 개도 60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기획전인 '백자-달을 품다'를 개최함

2) 역사기념 메가프로젝트의 해외사례

□ 영국 밀레니엄 프로젝트 (2000)

- 영국은 밀레니엄(2000년)이 가지는 상징성과 대의명분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5년 밀레니엄위원회(The Millennium Commission)를 구성하고, 복권을 통해 약 3조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3,000여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함
- 런던은 그 동안 영국의 서쪽과 템즈강 북쪽중심의 발전에 의해 나타난 경제·사회·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템즈강 주변의 소외된 지역들을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중심에 둬서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
 -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21세기 런던의 발전이 템즈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균형적 도시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 글래스고우는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옛 공업지역의 도심재생 프로젝트로 활용하여 클라이드(Clyde)강을 축으로 한쪽에는 사이언스 센터, 아이맥스, 글래스고우 타워를 반대쪽에는 스코틀랜드 전시장과 컨퍼런스 센터, 밀레니엄 브리지를 건설함
 -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이언스센터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스크린을 가진 아이맥스 영화관, 글래스고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갤러리와 글래스고우를 전망할 수 있는 세계 최초 360도 회전이 가능한 127m규모의 글래스고우 타워를 조성함



〈런던아이〉



〈밀레니엄 돔〉

□ 베트남 하노이 정도(定都) 1000년

- 베트남은 리(Ly, 李) 왕조가 탕롱(昇龍; 現하노이)을 수도로 정한 지 1,000년이 되는 2010년을 기념하고, 도약적 국가발전 포부를 담은 의미에서 대대적 기념행사를 개최함
 - 외세에 대한 저항, 독립, 해방 그리고 통일의 역사를 기념함과 동시에 국제적 도시로의 도약 의지를 선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 하노이 인민위원회 기획투자국 총괄 하에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 총 58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는 등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완료 또는 기념행사에 맞추어 추진계획을 발표함 (Greater Hanoi 2030)
 - 박물관, 공원, 교량, 초고층 호텔 등의 건축 프로젝트에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이 참여
- 1,000주년 기점으로 발표된 하노이 국제화 프로젝트(Great Hanoi 2030)는 광역 하노이를 기능별로 개발하여 국제도시로 변모시키려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기획됨

4) 중대한 일을 치르고 그 내용을 적어서 사당이나 신에게 고하는 제사를 말함

5. 개도 천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전북도-전남도-광주시, 전주시-나주시 공동대응체계 구축

- 서울시와 경기도는 단일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에 반해 경상도 개도 600주년은 광역단체(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간 협력체계보다 시군간 협력체계와 지역별 자체 사업을 지역별로 자체 사업을 추진함
- 개도 천년을 전 국가적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라도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이를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가칭) '전라도 개도 천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개도 천년의 국내외 홍보, 공동으로 국가사업 및 메가프로젝트 발굴

- 개도 천년 도래 이전에 국내외 학술대회, 프리이벤트 등을 통해 전라도 개도 천년의 역사와 의미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국가기념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 전라도 개도 천년 준비위원회를 통해 공동사업을 발굴하되, 국가사업, 광역단체 공동사업, 기초단체(전주-나주) 공동사업, 지자체별 단독사업 등을 구상해야 함
- 전북발전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 기획과제를 통해 개도 천년 기념사업 및 새로운 천년을 위한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함

□ 국가사업의 2017년 대선공약화 및 2018년 新정부 국정과제화

- 전라도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발굴된 국가사업 및 메가프로젝트를 2017년 대선공약과 2018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노력함
- 전라도 개도 천년의 기념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불균등 발전으로 겪어야 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추진해야 함을 알려야 함
- 잘못된 천년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새롭게 천년을 구상한다는 의미에서 (가칭) '전라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J-GDP, Grand Design Project)라는 이름으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함

개도 천년 사업목표	천년역사 재조명으로 전라도 인식제고 및 동북아 문명가교로서 새로운 그랜드디자인 기반구축			
개도 천년 사업전략	① 숨겨졌던 천년의 역사 바로 세우기 ② 전라 혐오증 해소 위한 국민인식 제고 ③ 전라 영광 재현 위한 그랜드디자인사업 ④ 동북아 문명의 가교 프로젝트			
개도 천년 핵심키워드	역사시대 속 전라도	한민족 고유의 문화	바닷길과 동북아 문명가교	절의와 저항, 전라 인재

1) 개도 천년 기념사업 예시

① 국가주도의 개도 천년 기념식 (2018)

- 개도 천년이 되는 지역은 전라도가 유일하며, 한민족 역사의 유구함을 세계에 알리는 목적과 전라함오중 해소라는 국가적 책무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주도의 기념식을 진행함
-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밀레니엄프로젝트의 의미를 담아 개최함. 또한 지역차별과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원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반영함
 - 국내외 주요기관 및 관계자 초청, 세계적인 고도지역 대표자 초청, 새 정부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국가발전 차원의 전라도 비전과 전략 발표, 지역차별 및 지역감정 해소 이벤트 등
- 천년 동안 전라도의 중심이 '전주'였기 때문에 전주에서 개최하거나, 전주-나주의 상생발전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두 지역의 동시 개최 등도 가능할 것임

② 천년역사바로세우기 (2017~2018)

- '전라도 함오중'을 해소 위한 국내외 학술행사, 대국민 홍보이벤트 등을 2017년부터 개최함
 - 한민족 역사에서 전라도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국내외 학술대회 및 이벤트(타 지역과의 교류행사) 개최, 전라도 함오중 해소를 위한 국민홍보(방송 등 제작), 홍보책자 발간 등
- 전라학 프로젝트 : 전라도의 역사·정신·문화·경제·인물 등이 한민족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현대사회 및 미래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립함
 - 국가연구기관, 전북연구기관, 전남연구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국가연구과제화 : 한국학진흥사업 일환으로 추진

③ 천년의 전라 방문의 해 개최 (2018)

- 국가 차원의 '2018 천년의 전라 특별 방문의 해'를 개최함. 천년 동안 이어온 전라도의 역사·문화·자연 등을 통합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글로벌 마케팅을 실시함
- 기념식에서 특별 방문의 해를 대내외적으로 공포함. 이를 위해 2017년부터 방문의 해 추진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통합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통합마케팅(홍보대사 임명, 국내외 광고, 홍보이벤트), 개도 천년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엠블럼 제작 등이 이뤄져야 함
- 전라도 지자체가 기존 축제 또는 신규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하여 기념행사 및 축제가 연중 진행 되도록 유도해야 함. 또한, 숙박, 식당, 쇼핑 등 관광서비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방문의 해 기간 동안 전라도 전체에서 대상으로 통합적인 관광할인혜택 이 제공되어야 함

④ 문화(예술)로 맞이하는 개도 천년

- 기존에 진행되던 전라도 지역의 모든 예술행사 및 문화축제 등에 개도 천년을 의미를 담아 행사를 개최하거나 일부 행사로 개도 천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을 배치함



<한국방문의 해 엠블럼>

5) 여기에서 제시되는 사업은 아이디어 차원의 구상임. (가칭)전라도 개도 천년 준비위원회의 자체사업 구상, 전북발전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의 기획과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구상될 필요가 있음

○ 개도 천년 기념 대규모 예술행사 및 문화이벤트를 개최함

- 예를 들어, 밀레니엄 K-POP콘서트, 제12회 광주비엔날레(2018)의 확대, 개도 천년 기념 전라도 지자체 공립예술단 연합공연 제작, 전라도 연합 1,000인 풍물공연, 천년 바닷길 해상공연 등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임

6) 익산시, 2014, 『이천년 역사 고도 : 익산이 왜 이천년 역사고도인가?』 참조.

7) 나주 및 천안박물관에 마한유적을 모아놓은 전시관이 있으며, 익산에는 2종 박물관으로 마한관이 있을 뿐임

2) J-GDP: 전라 그랜드디자인 프로젝트(안)

① 전라역사 新르네상스: 묻혀있던 왕조의 부활

□ 전라역사의 시작 ‘마한’, 동북아교류의 중심 ‘후백제’

○ 전라도의 역사는 기원전 300년~300년까지 약 600여 년간 존속했다고 추정되는 마한에서부터 임. 익산은 풍부한 농산물을 토대로 우수한 청동기문화를 발달시켰으며, 삼국유사,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준왕이 익산 금마산에서 마한을 개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⁶⁾

- 마한은 천안, 익산, 나주 지역중심의 54개국, 진한은 대구, 경주 지역중심의 12개국, 변한은 김해, 마산지역중심의 12개국으로 구성

○ 892년부터 시작된 백제부흥운동을 거쳐 900년 견훤이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아 국호를 백제로 하면서 후백제의 역사가 시작됨. 중국 강남의 오월에 사신을 보내 외교관계를 시작하고 927년 경주에 입성하는 등 한반도 남서쪽을 중심으로 남쪽일대를 장악함

- 견훤왕이 왕건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기억하는 바는 평양성 문루에 활을 걸어두고 대동강에 말의 목을 축이는 데 있다”라고 할 정도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936년 후백제의 멸망이 부각되면서 실패한 역사로 기억되어 재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함

□ 패자의 기록으로 조명 받지 못한 전라 왕조의 복원 및 자원화

○ 개도 천년을 맞아 한민족 역사의 한축을 담당했던 전라왕조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함

- 쌀문명 중심지였던 마한은 북방민족(고조선)과 다른 한민족 고유의 문화를 형성한 고대왕국이었으며, 후백제는 중국 오월과 외교관계를 맺을 정도로 동북아교류의 가교였으나 패자라는 이유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함

○ 마한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역문화계의 숙원사업인 ‘마한박물관’의 건립과 사적 및 문화재지정 등을 통해 마한 역사문화의 재정립이 필요함.⁷⁾ 후백제와 관련해서는 국립전주박물관이 최근 확정한 후백제 왕궁터와 성터, 긴급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완주 봉림사지터 등을 안정적으로 발굴하고 사적으로 지정해야 함

○ 발굴조사 등에 이어 마한과 후백제 왕도로서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왕궁과 도성 복원, 역사·유물전시관 조성, 교육·체험시설 조성, 관광자원화 등을 위한 마한·후백제 新르네상스프로젝트가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② 밀레니엄 상징공간(파크) 및 역사·문화루트 조성

□ 전라밀레니엄파크 조성

11

- 개도 천년을 기념하기 미래 전라도의 비전을 상징하는 밀레니엄파크를 조성함. 개도 천년을 상징하는 조형물, 역사체험공간, 공연장 등 예술과 융합한 공간으로 조성해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함
- 전라도 경계지역에 새롭게 조성하거나, 아니면 방문객과 주민의 일상적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전주-나주의 도심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 각각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사례1 : 신라밀레니엄파크

- 경주시는 신라 1000년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신라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놀이동산으로 신라밀레니엄파크 조성
- 신라밀레니엄파크에는 신라귀족마을, 밀레니엄게이트, 에밀레 타워, 석빙고 등의 신라시대 상징물과 신라주제 공연, 어트랙션, 공예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에밀레 타워(라-당해상전투)〉



〈역사가도 루트〉



〈마상기예〉

□ 사례2 : 시카고밀레니엄파크

- 시카고시는 버려진 차고지를 시민들의 휴식처인 밀레니엄파크로 조성. 기부금을 모금하여 2000년 개관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2006년 완전 개관
- 대표적인 조형물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만든 콩모양의 클라우드 게이트(Cloud Gate), 시카고 플랜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번햄 파빌리온(Burn ham Pavillion), 야외공연장인 제이 프리츠키 파빌리온(Jay Prizker Pavillion)이 있음



〈밀레니엄파크 전경〉



〈클라우드 게이트〉



〈제이 프리츠키 파빌리온〉

□ 전라 천년의 역사를 복원·연계한 '전라역사루트(全羅歷史街道)' 조성

- 천년 역사를 상징하는 주요거점과 관광콘텐츠를 연계하는 역사체험·관광 통합루트를 개발함

- 1단계는 2018년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 자원을 발굴해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2단계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자원을 복원해 지역자원화하고 기존 거점공간 및 콘텐츠에 추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체험관광루트로 조성함
- 35개 공공단체와 26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일본 간사이 '역사가도추진협의회' 처럼, 전라도 전체 지역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라천년역사루트 추진협의회' 를 구성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함

□ **일본 역사가도(歴史街道) 프로젝트**

- 교토(京都), 나라(奈良),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등의 역사도시가 있는 일본 제2경제지역 간사이(関西)에는 일본 국보 50% 이상이 집약되어 '역사문화 보물창고' 라 불림
- 역사가도(歴史街道)는 유구한 역사적인 무대를 방문하며 일본문화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루트를 말함. 1991년 4월 '역사가도추진협의회' (官 36개 단체, 民 26개 단체) 발족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을 전담함
 - 간사이 8개 지자체(関西8府県)를 무대로 역사적인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간 만들기과 환경정비를 추진하며 미래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친숙한 일본 문화의 발신기지 만들기
 - 3대 목표 : 일본문화 발신기지 만들기, NEW여가공간 만들기, 역사문화 활용 지역 만들기
- 역사가도 모델지구에는 지역의 개성과 매력 창출을 위해 각 시정촌(市町村)별 역사테마를 설정하여 사업을 진행함
 -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로, 하천, 항만 정비 및 지역별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문화시설, 공원 등을 정비
 - 역사와 자연과 조화된 환경 정비, 모델코스 및 주변 안내 표지 정비, 관광정보 서비스 확대, 역사문화 공간만들기, 각종 이벤트, 지역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



<역사가도 목표>



<역사가도 루트>



<지역 경관 정비사업>

□ **천년 바닷길 연계, 전라해안 예술회랑 조성**

- 천년 동안 동북아 문명교류의 가교이자 융합을 통한 새로운 문명창출의 중심이었던 핵심지역(바닷길 및 물길, 주요항구, 문명의 거점)을 전통문화 및 예술로 연계해 21세기 동북아 문화예술 루트를 개발함
 - 전라도 주요거점은 전통문화·예술을 매개로 도시재생을 하거나, 이미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문화도시 및 예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길과 물길 등을 연계할 경우 독자적인 예술 루트 조성이 가능함
- 내륙 중심 역사루트와 별도로 해안가 및 물길을 중심으로 개발하되, 단계별로 추진함

□ 프랑스 지중해 문화권, 코트다쥐르, 리비에라 해안 예술회랑 지역⁸⁾

- 프랑스 남부의 지중해 연안과 이태리 리비에라 해안의 예술회랑 지역을 일컬음. 아비뇽, 아를, 엑상프로방스 등을 비롯하여 망통, 니스, 칸, 앙티브방스, 생폴 드 방스, 그라스, 비오, 마르세이유 등
-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예술의 중심,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이주. 예술과 창조의 용광로를 이루었고 작업실 등이 보존
- 반 고흐, 앙리 피카소, 앙리 마티스, 마르크 샤갈을 비롯하여 오귀스트 루노아르, 모리스 드 블라맹크, 라울 뒤피 등이 이 지역에서 작품 활동. 현대에는 아비뇽연극제, 칸느영화제, 망통축제, 산 레모 음악제, 등의 축제 등 관광 및 창조산업 발달
- 첨단산업과 문화예술 회랑 : 유럽 제1의 실리콘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인접하여 예술의 창의성을 첨단지식산업에 접목



③ 국제적 메가이벤트 유치 및 개최

□ 쌀문명 발신지의 미래, 농생명 글로벌화를 위한 ‘농생명 박람회’ 개최

- 메가이벤트는 일정 기간 1회성 혹은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대형이벤트로서 장기 혹은 단기적으로 지역 인지도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이 있음
- 전라북도에서는 ‘2017세계태권도대회개최’를 계기로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음.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한 메가이벤트 개최가 필요함
- 전라북도는 농생명산업 연구의 국가 거점으로서 세계 농생명 관련 ‘과거’, ‘현재’, ‘미래’의 방향 제시가 가능한 지역임
- 1단계로 국제 농생명 박람회(2020)를 개최함. 순천만정원박람회처럼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함. 2단계는 여수박람회처럼 BIE 인증 혹은 등록 박람회로서 ‘전주농생명박람회’를 2025년 경에 개최함

과거	현재	미래
농경문화유산 (벽골제, 지평선 등)	국가 식품클러스터, 혁신도시 이전 농생명 관련 국가 기관, 전북 식품 클러스터(장류, 치즈), 한식 문화 선도	민간육종연구단지, 정읍 방사선 육종 연구센터 등

8) 지역발전위원회, 2014, 「환경해권 장기미래 발전연구」 참조

④ 전라정신 계승 및 전라인재 양성 프로젝트

□ 동아시아인재를 전라도에서 양성하는, 동아시아칼리지 (College of East Asia) 설립

- 동아시아는 정치적으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경제적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EAC)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창립되면서 동아시아의 연대 의식을 가진 동아시아 엘리트 육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유럽에는 초국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두 개의 범유럽대학이 있음. 연구중심 유럽대학원(EU, 이탈리아 피렌체)과 교육중심 유럽칼리지(College of Europe, 벨기에 브뤼헤)임. 유럽칼리지는 유럽통합 전인 1949년에 민간중심으로 설립됐으며, 유럽대학원은 1976년에 개원함
 - “영국 타임스는 하버드경영대학원이 미국의 경영 엘리트를 양성하듯이 유럽칼리지는 유럽 정치 엘리트의 산실이라고 평가한다. 현재 덴마크의 토르닝 슈미트 총리와 핀란드의 스투브 총리, 그리고 영국의 클레그 부총리 등이 유럽칼리지 졸업생이며, 유럽연합 기관과 회원국 다수의 장관 및 고관 이 이 학교 출신이다. 유럽칼리지의 목표는 처음부터 명확했다. 다양한 국가의 우수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정신’을 만들어 내고 유럽 대륙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경향비즈니스라이프 2014.11.30. 조흥식 국제칼럼 참조)
-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패권을 장악하거나 강대국으로서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의심에서 자유롭고, 지정학적으로도 한중일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천년 동안 동북아 경제·문화의 중심으로서 문명교류의 가교였던 전라도에 동아시아칼리지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동아시아칼리지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함



동아시아 칼리지 홈페이지 화면

〈참고문헌〉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국역고려사: 지』, 경인문화사.
- 유시민, 1997, 『1997 대선게임의 법칙』, 돌베개.
- 이달호·서은영, 1997,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 연혁』, 경기도사편찬위원회.
- 이해준, 1999, 『역사 속의 전라도』, 다지리.
- 이희권, 2001, 『역사로 보는 전라도』, 신아출판사.



전북발전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효자동3가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